

농진청, 연일 무더위로 인삼밭 피해 우려

해가림 시설, 차광망 덧씌우고 바람 잘 통하게 관리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인삼 해가림 시설 안 온도 상승으로 고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인삼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는 25~30도(°C)다. 해가림 시설 안 온도가 30도(°C) 이상인 상태로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 고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온 피해를 본 인삼은 잎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타들어 가다가 심하면 잎이 떨어지고 생장이 멈춘다. 인삼 해가림 시설 안 온도는 시설을 표준규격보다 낮게 설치했을 때, 고



인삼밭 고온피해모습

랑 폭이 좁을 때, 36m 이상 길게 설치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올라간다. 농가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표

준규격에 맞게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이 36m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 환기를 원활하게 한다. 차광망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는 이중직 차광망을 덧씌워 그늘지게 함으로써 내부 온도를 낮춘다. 인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주위에 개랑 울타리를 설치해 그늘을 만드는 것도 좋다.

한편, 인삼은 예정지 관리 소홀로 토양 환경이 나쁘거나, 토양 수분이 부족한 경우 또는 토양 수분이 충분하더라도 토양 영양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온 저항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토양 수분이 18~21% 정도 유지되도록 물주기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고온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는 '고온 대비 인삼 재배 포장 관리 방법' 홍보 전단을 전국 인삼농협에 제공했다. 이와 함께 폭염 피해 상황을 수시 확인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마경호 과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삼밭 고온 피해가 예상된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8일 전주 관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북미(米)인 88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 미(米)인, 88데이' 개최

농협은행 전북본부, 우리쌀 소비촉진 행사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8일 전주 관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북미(米)인 88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미(米)인 88데이는 전북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우리쌀 간식 가공식품 홍보 캠페인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8번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8일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환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농협 법인 대표들이 참석해 전북쌀로 만든 가공식품을 고객들에게 나눠주며 우리쌀 가공식품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쌀 소비 감소, 쌀 값 하락 밀가루 위주의 서구화

된 식단과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오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더운 여름에 고객들이 시원하게 쉬어 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와 연계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쌀은 탄수화물 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10여가지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는 종합 영양제"라며 "건강에 유익한 쌀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이외에도 전북농협은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범도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가공식품'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우리쌀 소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옥기 기자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 도내 기업 유럽 진출 확대

전주상의, 세계한인무역협회 비엔나지회와 공동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청 윤순희 차장,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현장 방문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8일 수산 종묘 생산과 시험연구·기술개발을 보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고창군 소재)를 방문하여 해조류 육상 스마트팜을 새만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조류 연구시설 등을 시찰했다.

윤 차장은 새만금의 아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10조 원 투자성과에 힘입어 올리는 새만금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푸드허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관리 운영하는 해조류 양식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새만금에 해조류 육상 스마트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 차장은 해조류 양식업이 기후변화를 늦추고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고급화된 해조류 품종의 육상 스마트팜을 새만금지역에 적용될 방안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를 벌였다.

특히, 해조류 양식의 생물정화, 탄소저장 등 친환경성의 장점 요인을 살려 새만금이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사업 모델로 적극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오만호 기자



전주상의, 세계한인무역협회 비엔나지회와 공동 업무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7일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KITA) 비엔나지회(지회장 김준)와 전주상의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주상의는 전북자치도 소재 기업과 유럽지역의 무역, 투자, 기술 및 인적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산업, 경제동향 및 투자, 지역개발 등에 관한 정보공유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지원 확대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비엔나지회

운영 각종 지원사업(수출상담회 등) 홍보 및 참여 △각종 해외 연수(시장 개척단 등), 교육, 컨설팅 사업 운영지원 협력 △방문 경제사절단 및 상공인 상담 거대알선, 간담회, 산업사찰 등 협력 △양 기관 우의증진을 위한 상호 정기방문 추진 △이외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의 실시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에서 열리는 2024 세

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민간 차원의 역할을 결집하고 도내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주상의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상공회의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도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엔나 KOTRA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비엔나지회 김준 지회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유럽의 중심에 있어 도내 기업의 활발한 유럽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전 세계적 유통망이 급속하게 변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및 세계 시장 선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다변화 및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중기사랑나눔재단, 지역복지시설에 4400만원 상당 또띠아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남향푸드또띠아(대표이사 이군신)와 함께 8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법사랑위원회를 방문하여 4400만원 상당 또띠아를 전달했다.

남향푸드또띠아(주)는 1998년 창립 이후 "세계적인 품질의 맛있는 또띠아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또띠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며, 2024년 현재 누적 후원금액 2억1,800만원으로 2억원을 돌파하여 중소기업계 나눔문화 확산에 동반하고 있는 대표



적인 기업이다. 이번 후원한 또띠아는 지역복지시설 30여 곳에 전달하여 변함없는 지역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남향푸드또띠아(주)는 늘 나눔현장에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고 자리를 찾아주는 따뜻한 동반자라며, "비즈니스경영 임정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군신 남향푸드또띠아(주)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입맛이 없을 우리 이웃에게 질 좋고 영양 높은 또띠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무주군산림조합, 벌초도우미 개시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은 시간, 장비, 인력 등이 부족하여 묘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산주, 임업인, 조합원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벌초도우미를 운영한다.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1992년부터 묘지관리사업을 실시하여 벌초,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와 조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하는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벌초는 매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벌초도우미 서비스 신청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묘지 훼손 우려가 있

는 만큼 작업자의 전문성과 추석 성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줄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벌초도우미 사용료는 기본 단가를 책정하여 묘지규모, 면적, 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집중 운영기간은 7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 홈페이지나 무주군산림조합(063-322-2314)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아울러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각 지역산림조합에 문의하면 산림경영지도원을 통한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